不通 문화재 행정에 조계종 '뿔났다'

자승 스님, 신년회견서 문화재청 비판 이유는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의 일방적인 행정에 조계종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문화재청에 대한 이례적인 비판이다.

자승 스님은 1월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재 문화재청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전에 무관심하고 관료조직에 안주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는 등 소통에 취약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공원 등 보전이 필요한 국가유산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부 기구의 개편방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단 수장이 신년회견에서 정부 기관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고 드문 일이다. 하지만 조계종 내 문화재 담당 부서는 그간 곪아왔던 문제들이 이제 터져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취재 결과, 현재 조계종과 문화재청의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 갈등은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관련된 문제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문화재청이 수요기관으로 조달청이 공고한 사업이다.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가 낙찰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경 낙찰된 이 연구용역에서 신흥사 · 용문사 · 안국사 · 화엄사 · 해인사 · 금당사 · 대전사 · 구룡사 · 내장사 · 월정사 등 10곳 사찰이 연구 대상자가 됐다. 문제는 이 사업이 조계종과 해당 사찰과는 전혀 사전협의 및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화재청 관료조직 안주해"
신년기자회견서 이례적 비판

사찰 문화재 관람료 용역 연구
종단 · 사찰 통지없이 진행 논란
폐기 요구에도 민원 핑계 급급

조계종 종규 개정 연구과업 지시
"명백한 종교탄압, 헌법 위배돼"
연구기관 전문성 의문점도 다수

조계종 총무원 복수의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용역 연구 내용을 접하고 매우 당황했다"면서 "곧바로 11월 9일과 30일 연이어 연구 용역 폐기와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문화재청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사안을 무마하려 했다. 올해 1월 5일 국장 스님들이 문화재청장을 항의방문하고 서한을 전달하고서야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매우 불성실한 내용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것 이외에도 문화재청의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 용역'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게 조계종 입장이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기관인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는 문화재 관련 연구소가 아니며, 연구참여자도 역사 철학, 도시공학, 정치경제학, 미디어영상, 농학 등 해당 사안과 관계가 없다"며 "또한 녹색연합의 경우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주장했던 이해관계 단체로 해당 연구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져 애초 제척 사유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문화재청이 연구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과업지시서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지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갈등내용 현황 · 원인 분석 및 위법성 검토 △징수 위치에 대한 조사 · 연구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 관련 규정 문제점 분석 △관람료 폐지 시 사찰 손실분 보상 방안 △문화재 관람료 책정 수준의 합리적 기준안 마련 등을 연구기관에 지시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과업 지시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내 관람료 징수 조항이 문제가 있고,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타당한 연구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 관련 규정의 문제점 분석 및 정비 방안을 지시하면서 조계종 내부 종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정비 연구를 예시로 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1월 5일 문화부장 정현 스님 명의의 질의 서한에도 잘 나타난다. 정현 스님은 "과업 내용에 조계종 종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비방안을 지시한 점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종교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문화부 관계자 역시 "종교 단체의 종법은 어디까지 내부 자치 규정으로 국가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재단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는 사실상 종교탄압"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본지는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과 답변을 듣기 위해 담당 사무관을 접촉했으나 "서면 질의를 하라"는 답변이 돌아와 1월 12일 서면 질의서를 접수했다. 추후 현 사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이 회신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면에 게재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청 답변 차주 상보〉

'현대차 GBC' 반대 범국민서명 확대

조계종 "재벌특혜 · 졸속행정 용납 안 돼"

봉은사 인근에 건립 예정인 현대차 그룹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반대운동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구랍 15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GBC 건립을 반대하는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을 실시한 데 이어 최근 조계종 사찰 3000곳에 서명지를 배포했다. 또한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kr)를 통한 온라인 서명 및 모바일 서명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월 말까지 100만 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목표다.

조계종은 서명운동 전개와 더불어 GBC 건립 배경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2015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회장이 면담을 가진 뒤 열흘이 지나 기획재정부 '한전부지 개발 조기 착공 지원'이 발표됐다. 여기에는 한전부지 매입 관련 8천억 원의 세제특혜를 비롯해 현대차가 최순실(미르 · K스포츠 재단 등) 씨에게 201억 원을 헌납한 것으로 조계종은 보고 있다.

현대차 GBC는 총 105층, 높이 553m의 초고층빌딩으로 건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이 같은 건립 규모에 대해 "GBC는 남산과 남산타워, 25층 아파트를 일렬로 세운 높이에 버금간다"며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재벌특혜와 졸속행정으로 인한 천년고찰 역사문화환경 파괴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불자를 비롯해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더욱 관심 갖고 서명에 동참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순수한 정교분리 불가… 정치 참여 기준 필요"

1월 11일 종자연 집담회 '한국정치 종교과잉 진단'

정교분리 원칙의 대한민국 사회서 종교의 사회 및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또 경계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이를 진단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은 1월 11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서 집담회 '한국정치의 종교과잉을 진단한다'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종교의 정치 및 사회 참여를 찬성한단 점엔 이견이 없었지만, 이를 권력화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불교의 정치참여에 대한 재구성'을 주제로 발표한 조재현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은 한국불교에는 정치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제재할 것인지 기준점이 없단 점을 지적했다.



조재현 심현주 김진호

조 사무총장은 "우리 역사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해방 후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원칙이 마치 신성한 전가의 보도처럼 오늘날 성속에 구분 없이 사용된다"며 "정교분리 범위와 한계에 대해 각 종단 입장이 달리 해석되거나 기준이 혼재되거나, 혹은 전무한 상황"이라 꼬집었다. 이는 정교가 순수하게 분리될 수 없는 점을 받아들이고, 그 방안과 기준에 대해 모색해야한단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조 사무총장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 문제서 자본, 즉 돈을 핵심 문제로 평가했다. 조 사무총장은 "과거처럼 불교가 또다시 정치와 불법적으로 유착돼 승가공동체 본연의 이상을 잃고, 정치권력에 순응해 금권에 의지하려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극 정치에 개입해 공공선을 위한 세속화를 진행해야한다"며 "정치권력,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를 통해 종교권력이 균형성을 갖는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이것이 입전수수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심현주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도 종교의 정치참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단 점을 역설하며, 다만 제도교회 내지 교회 권위자가 개인의 사회적 권력 및 교권확장을 목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긴밀한 관계에 대해 교회 자체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은 한국 사회의 권력과 자본이 특정 권력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일컫는 '파워엘리트' 현상을 비판하며 "종교는 파워엘리트서 가장 중요한 연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 대형교회가 그렇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신교회는 권력과 자원에 대한 독점체제를 청산하고 성공지상주의를 해체하는 새로운 개혁을 맞이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종교인 모임은 1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을 했다.

"개헌, 반복되는 정치 불행 막는 길"

6대 종단 종교인 모임, 국민기본권 실현 · 국정안정 촉구

장기화된 국정혼란에 종교인들이 일침을 가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연성헌법으로 개헌을 촉구했다.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종교인 모임(심부름꾼 법륜 스님 등, 이하 종교인 모임)은 1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을 했다. 이들은 연성헌법으로 개헌 추진 및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이나 인사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종교인 모임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탄핵하거나 소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한다. 또 국민에게 헌법 개정과 법안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하고, 헌법 개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구조를 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삼권분리의 정신에 따라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을 국회로 이관하고,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독립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시간이 촉박하단 이유로 개헌을 미루거나 포기해선 안 된다. 국회는 구성된 개헌특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특위가 돼야한다"며 "개헌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성과이며 반복되는 정치적 불행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는 개신교 160명, 불교 157명, 원불교 72명, 성공회 23명, 천주교 83명, 천도교 28명 총 523명이 함께했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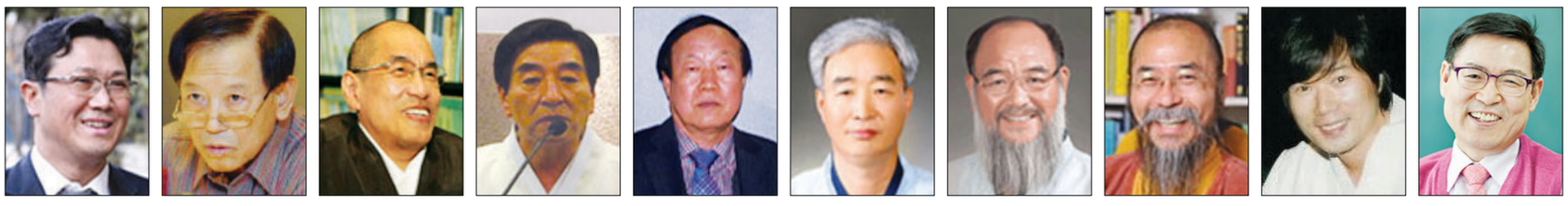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2월23일~6월 22일, 매주 목(木)18:40~21:30/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2월 23일(목) 17:30~ 공개강좌 2월 9일 (목) 18:30 등록금 240만원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심화과정 FCA현대사주학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 장 소 : 동국대학교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